

# 오수의견제 & 임실N펫스타 대성공

역대 최대 8만2000여명 반려인 · 반려동물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 · 먹거리 호평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5 임실N펫스타에 8만2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둘째 날을 제외한 첫째 날과 셋째 날 곳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의 방문으로, 축제장은 그야말로 '개반 사립반'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였다.

올해 축제는 반려견 중심의 신박하면서도 참신한 프로그램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운동회 등 어질리티, 반려동물 쇼, 산책길 운영, 다양한 팻용품 볼 수 있는 박람회, 알찬 토크쇼와 재미진 반려동물 패션쇼에 전국 12개 대학 반려동물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 국내 정상급 팻축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실한우와 먹거리 가득한 향토음식관, 임실치즈파자와 치즈유제품, 푸드트럭 등 풍성한 먹거리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역대급 방문객으로 치즈 등 매출액도 전년 대비 경종 올랐다. 치즈 등 유제품의 경우 지난해 총매출액(3천800만원)보다 두 배에 달하는 7천150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만원 어치가 팔렸고, 한우명품관 등 부스 매출도 증가했다. 특히 팻용품 박람회에서사는 축제 기간 2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3명의 이용종 교수, 강형욱 훈련사,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토크쇼를 비롯해, 반려동물 운동회, 특수견 시범훈련, 전국 반려동물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임실펫 산업박람회, '임실에서 우리 함께 꽃길 걷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까지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치료도우미견 '아벤'와 '금똥'의 담당 반려인이 의로운 반려동물 공로상을 수상해 축제에 깊은 감동을 더 했다. 해당 반려견들은 치매안심센터, 마음사랑병원, 청 소년수련원 등에서 동물매개치료를 꾸준히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임실군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았다.

둘째 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4회째 치러지는 전국 반려

동물 패션쇼에서는 더욱 참신해진 패션기획과 잘 짜여진 스토리로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이 조화를 이뤘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13회 최갑석 가요제는 예선전을 치른 10개의 팀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마지막 날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명랑상당쇼, 임실군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임실N펫스타 축제에 역대 최대인 8만명이 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여 큰 성공을 거둔 데 대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오수 의견의 성과를 담은 임실군 오수를 반려동물 산업 육성뿐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의 중심지,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 순창 어울림센터, 벤치마킹 주목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도내 시 · 군 관계자 잇따라 방문

순창군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인 '순창 어울림센터'가 도시재생 우수 운영 사례로 주목받으며 도내 시 · 군 관계자들의 견학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 완공된 어울림센터는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역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도시재생의 비전인 주민 중심의 일상 속 변화를 실현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구성과 더불어, 행정 직영 기반의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을 채택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울림센터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순창읍 일대의 주민협의체, 지역 단체, 소모임,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3층 '책원터'는 조용한 독서와 휴식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공간 구성을 기반으로 어울림센터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재생 실



현의 장으로 기능하며, 타지역 도시재생 모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관련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졌다.

아울러, 장수군은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앞두고 순창의 운영 방식과 주민 연계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완주군 역시 도시재생 자치 공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사례를 공유받는 등 순창형 도시재생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 어울림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도시재생을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와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제9회 어린이날 축제 성료

순창군 일품공원에서 열린 제9회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는 지금 순창에서 행복하기!'가 지난 5일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순창청소년상당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무대, 공연, 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환경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무대에서는 무지개국악오케스트라, 댄스, 합창, 오카리나와 기타연주 등 초청공연과 함께 어린이 무대게임, 가족 동요대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놀이마당의 에어바운스, 에어소프트, 굴다트, 풍차야 찬다, 민속놀이 등은 어린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체험마당에서 진행된 캔버스 그림 그리기, 화분심기, 아시아 전통놀이, 가족 사진 촬영, 바람캐비 만들기, 소방 · 경찰 체험,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는 장시간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되어 의미를 더했다. 환경마당에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대화용기를 대여해 먹거리를 즐긴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순창군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순창군 특성에 맞는 보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설문 조사원이 가정을 찾아가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건강 행태, 만성질환 유병률,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보건사업의 기획과 성과 평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폭넓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오직 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종합 · 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 납부 안내

남원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되어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원세무서나 납원시청 재정과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두 채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보내는 안내문을 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